

제 39 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A.

0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02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0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0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0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0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둔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B.

0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08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09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10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쯤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C.

12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